

좋아지고, 닭요리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음식이 되어서, 반드시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, 그때의 감정들은 아직도 여전한 것 같다.

그것은 모두 지금까지 발전해온 양계업 덕분 일 것이다. 우리를 위해 양계에 땀을 흘리시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.

그런데 우리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다. 최근 몇 년간 닭요리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다.

아직까지는 그리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지만, 요즘 닭사모 모임을 갖다보면 비용부담 때문에 못나오는 친구들이 꽤 있을 정도로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 느낌은 더욱 크게 느껴진

다.

게다가 조류독감에 쓰러지는 농가와 업체를 보면서 그리 맘놓고 먹을 수도 없었던게 사실이었다. 온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던 양계업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위기를 맞게 되어 안타까움 금할 길이 없었다.

하지만 을유년에는 부디 양계업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 누구나 맘놓고 닭요리를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.

이를 위해 우리 양계업 종사자 분들께서 힘내셔서 많은 수고 해주시길 응원해 본다. 또한 우리 닭사모도 언제나 응원하며, 닭요리 열심히 먹겠노라 다짐해 본다. **양계**

닭고기

닭요리의 사랑은 계속된다

배 상 희

부산시 사하구(회사원, 닭사모 부산 지회장)

2004년 한 해 만큼은 나의 정신이 한곳에 쏙 빠질 수밖에 없었다.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닭요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(이하 닭사모)이다.

닭사모는 닭요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모임이다. 닭사모에서 부산모임 대표를 하게 되면서 각종 번개나 정모, 그 외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이끌어나가게 되었다.

행사라는 것이 적게는 한 달에 한번, 많게는 한 달에 네 번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라 거의 한해를 정말 닭요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





아니다. 뿐만 아니라 2004년은 조류독감(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)으로 나라가 한참 시끄러웠을 시기였기 때문에 더 바쁜 한해였지 않나 싶다.

이 시기 가장 기억나는 것이 닭사모 전국 MT이다. 2004년 2월 28일. 닭사모인들은 조류독감을 이겨내기 위해 MT를 기획하였다. 전국 약 1,900명의 닭사모인들이 대전 계룡산 한곳에 모여 닭소비를 늘리는데 한 몫 하자라는 취지였다. 물론 1,900명이 다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지방에서 수도권에서 속속 모이기 시작한 회원들. 물론 부산에서도 회원들을 한차에 가득~실고는 MT장소로 향했다. 차가 밀리

고 어둑어둑해서야 도착한 계룡산. 거기엔 닭을 좋아한다는 한 가지 이유로 모인 닭사모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.

50여명이 모인 자리. 서로 인사를 나누고 닭요리도 하면서 1박2일만에 닭 100마리와 각 업체에서 후원 받은 닭발, 그리고 음료 및 주류. 이 모든 것을 깨끗이 휩쓸어버렸다. 역시 닭사모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. 상상이 가는가. 닭이 적어도 120마리 정도는 되었는데 그것을 모조리 다 먹어버리다니...

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.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가는 순간.

“야~너한테 닭 냄새난다.” 어머니께서 한 말씀하신다.

“다른 사람은 바늘로 찌르면 피나오는데 넌 찌르면 닭 나오겠다.” 아버지께서도 한 말씀 거드신다.

짧은 시간 그 많은 닭을 다 먹었으니. 나의 몸은 자연스럽게 닭 냄새를 흡수하였던 것이다. 하루만에 다 먹어치운 그 닭들이 내 몸 안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었으니 냄새가 날만도 했다. 지금도 닭요리를 계속 먹고 있는 나에게서 닭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닐까?

이제 조류독감도 자취를 감춘 시기. 조류독감이든 아니든 항상 닭요리를 좋아하고 즐겨하는 닭사모인들은 2005년 을유년 한해에도 닭요리 사랑은 계속될 것이라 본다. 아니 계속되어야 한다. 2005년에는 또 과연 얼마나 많은 닭을 먹을 것인가... 기대하시라 개봉박두. **양계**